

2024년도 항만물류산업 혁신대회 실시

- 혁신 우수사례 5개 선정 및 항만물류산업 발전 유공자 14명 포상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3일(화) 세종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2024년도 항만물류산업 혁신대회'를 개최하여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에서 추진한 항만물류산업 혁신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시상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시작된 항만운영 혁신대회는 국내 항만물류산업의 효율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열려왔으며, 올해부터는 '항만물류산업 혁신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항만물류산업과 관련된 혁신적인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부산항만공사가 국내 최초로 선박 대 선박 방식으로 컨테이너 선박에서의 친환경 선박연료 병커링과 하역 동시작업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한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번 대회에서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5개 기관에 장관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항만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이를 통해 항만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의 공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 최우수 상금 120만원(1개 기관), 우수 각 70만원(2개 기관), 장려 각 50만원(2개 기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 우수사례가 전국 항만의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국내 항만물류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최문건 (044-200-5770)
	항만물류산업과	담당자	서기관	배준오 (044-200-5771)